

# 위장질환 치료물질 미국 FDA 인증

포스텍 벤처 뉴로넥스, 천연 생약재 강황·울금·감초 효능성분 활용

포스텍(포항공과대학교)의 벤처기업인 뉴로넥스가 개발한 <스트레스성 위장질환 치료 효능물질>이 미국의 FDA(식품의약품안전청) 공식 인증검사를 통과했다.

뉴로넥스는 최근 포스텍 생명과학과의 바이오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<위장질환 치료 효능 신물질>이 FDA 공식 인증검사기관 연구팀이 수행한 인증검사를 통과해 1월16일 공식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1월22일 발표했다.

신물질은 천연 생약재인 강황, 울금, 감초 등에 있는 효능성분을 포스텍이 개발한 특허기술로 복합한 신 개념의 원료로 스트레스성 위산과다를 촉진시키는 <H2 히스타민 수용체 단백질>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위염, 위궤양, 속쓰림 개선에 탁월한 치료 효능이 있다.

개발물질은 2006년 서울국제발명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위궤양, 위산과다 예방과 치료효능을 가진 기능성 음료 쿠르칸(CURU-KHAN)을 제조·시판하고 있다.

뉴로넥스 관계자는 “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의 안전성 검사에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기능성 음료의 미국 수출과 관련기술 판매에 주력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23>